

서울굿 음악의 전형성을 통해 살펴본 금성당제의 음악

반 혜 성*

국문초록

구과발 소재의 금성당은 2008년 국가민속문화재 제258호로 지정되는 한편, 2016년에는 샤머니즘박물관으로 개관되어 현재에 이르며 해마다 금성당제를 복원하여 거행하고 있다. 이 글은 총 11차가 거행된 금성당제의 의례 구조를 우선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2019년 춘제와 추제, 그리고 2022년과 2023년 금성당제의 거리별 음악 구성을 분석하여 서울굿 음악의 전형성이 금성당제 안에서 연행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금성당제의 의례는 금성대왕굿과 금성대군굿, 이말산공인 혼맞이, 당돌기, 제당맞이, 제당배웅과 같은 절차를 특화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상의 거리를 포함한 금성당제의 전반적인 연행은 무가, 무무, 무의식, 삼현육각 등의 연행 요소로 짜이는 정형화된 구조에서 서울굿 음악의 전형성을 담고 있었다. 특히 금성당제의 주신은 얹은 거리에서 〈노랫가락〉, 선 거리에서 상산장단의 〈긴염불〉로 청하고 있어서 음악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전승의 위기에 있는 〈황제풀이〉와 단절되었다고 보는 〈안당말미〉가 금성당제에서 연행되었다는 사실은 금성당제가 단순한 당제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음악적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황제풀이〉 무가를 포함한 성주굿의 연행은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나, 〈안당말미〉의 구송은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 없어서 그 존재를 드러내어 실재 자체를 고민하게 한 의도에 나름의 의미를 둘 수 있다.

과거 나라굿을 하였던 위상이 있는 금성당제는 현재의 연행에서도 나라의 태평성대와 국민민안을 기원하는 내용의 공수를 주고 있다. 따라서 금성당제의 음악적 위상과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황제풀이〉나 〈안당말미〉와 같은 서울굿의 특수한 무가와 〈자진한잎〉이나 〈길군악〉 같은 보통의 천신굿에서는 듣기 어려운 삼현육각을 통해 당제의 음악을 완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과발 금성당제는 서울의 도시화로 수많은 당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당제도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에서도 소생한 현재진행형의 당굿이라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 보였다. 가까운 시일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금성당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소생하는 당굿의 대안이기를 바래어 본다.

[주제어] 서울굿, 금성당, 금성당제, 금성왕신, 금성대군, 황제풀이, 안당말미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 flasung@nate.com

— 목 차 —

I. 머리말

II. 금성당제의 의례 구조 및 거리별 음악 구성

III. 서울굿 음악의 전형성과 구파발 금성당제 음악

IV. 맺음말

I. 머리말

서울지역에서 마을이나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부군당굿, 도당굿 계열의 당제는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수많은 당의 훼손으로 인해 구심점을 잃고 점점 소멸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이러한 분위기에서 구파발에 소재한 금성당에서 다시 열리고 있는 당제가 주목된다. 금성당은 조선 왕실이 〈주상 전하만세(主上殿下萬歲)〉 전패(殿牌)를 봉안하여 신앙처로 삼으며 매년 당제를 지냈던 곳이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들러서 안녕과 소원을 빌었던 곳이었다.¹⁾ 구파발 금성당에서 단절의 시기가 있었던 당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복원되어 연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금성당은 과거 경성부의 중요한 무의례의 장소로 언급된 13개의 당(칠성당, 노인성, 성제당, 용궁당, 아기씨당, 할미당, 금성당, 국사당, 일월당, 화주당, 송신당, 두정당, 와룡당) 가운데 하나였다.²⁾ 본래 금성당은 구파발 진관동, 노들 망원동, 각심절 월계동 등 세 곳에 있었고, 특히 구파발은 윗금성과 아랫금성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 중 아랫금성당만이 그 모습을 갖추어 현재의 구파발 금성당으로 보존되고 있다.

구파발 금성당에 모신 금성 신앙의 대상은 금성대왕(錦城大王)과 금성대군(錦城大君)이 주신이다. 금성대왕은 고려 충렬왕 때 정령공으로 봉해진 전라도 나주의 금성산신에서 비롯되었다. 고려 왕실은 금성산 일대에 사당을 지어 매년 제관과 제물 및 제문을 내리고 나라의 태평성대와 백성의 안녕을 빌면서 금성 신앙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금성대왕은 조선에 이르러 한양 유역으로 전파되었고, 조선 왕실은 금성당 건립을 후원하여 수도권 금성대왕 신앙의 확장을 뒷받침하였다.³⁾

금성대군은 세종대왕의 여섯째아들로,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사사된 실존의 인물이다. 한국 무속에는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역사 속 인물을 신령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여 금성대군이 신격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조 때 금성대군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며 왕이 축문과 향을 내리는 제사가 재개된 이후 추앙의 대상자가 되면서 본격적인 신격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보고 있다.⁴⁾

이에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부 만신들은 금성당에서 모셔지는 신을 금성님 또는 금성왕님이라 부르면서 영험하게 생각하였고,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드나들면서 물고를 받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였다.⁵⁾ 금성당에

1) 양종승, 『금성당제』, 글자와 기록 사이, 2021, 20~22쪽.

2) 沈雨晟 譯, 秋葉隆・赤松智城 共著, 『朝鮮巫俗の研究 下』, 서울: 東文選, 1991, 126쪽.

3) 홍태한, 「서울 신령 '금성'의 정체성 고찰」, 『실천민속학회』 31, 실천민속학회, 2018, 183~189쪽.

4) 양종승, 「금성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금성당 실재」, 『금성당제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2019, 32~34쪽.

5) 박홍주, 『서울의 마을굿』, 서문당, 2001, 251~253쪽; 양종승, 「샤머니즘박물관 설립 취지 및 소장 유물」, 『민속기록학회』

서 물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만신들에게 금성당은 북측에 있는 개성 덕물산의 장군당과 같은 성지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존했던 왕족을 신격화한 종교적 성소이며 조선 왕실의 기양제 주재 및 왕실에 종사하였던 궁녀와 내관들과의 관련성, 그리고 일제강점기 성저십리 경계 안팎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 안 되는 성소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금성당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⁶⁾

이렇듯 금성당은 역사적으로 호국 신당으로서 나라굿을 거행했던 성소이면서, 마을주민들의 대동굿, 그리고 만신들이 개인적으로 굿을 하는 공공적인 굿당으로 활용되었다. 금성당은 나라의 태평성대와 지역민의 안녕을 위하여 지속적인 당제를 지내며 마을이 대동단결하게 하는 민간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⁷⁾

이에 구파발 금성당은 그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8년 7월 22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58호로 지정된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2008년 처음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금성당굿이 복원되어 거행되었고, 2016년부터는 본 자리를 찾아서 구파발 금성당에서 2023년 현재까지 총 11회의 금성당제를 이어오고 있다.⁸⁾

그동안 구파발 금성당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2019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과 관련한 금성당제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를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금성당제의 의례 구조 및 신가, 음악, 제물, 굿춤, 복식, 도구, 그리고 금성 신앙에 이르기까지 총 10개의 주제가 발제 되어 열띤 논의를 거쳤다.⁹⁾ 금성당과 금성당제를 둘러싼 다양한 내용을 다루며 금성 신앙의 실체를 구체화하고, 의례 구조와 상징물을 분석하는 등 현존하는 성소에서 직접 거행되는 당제의 의미와 지향점을 찾는 성과를 내었다.

이에 이 글은 서울지역의 당제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구파발 금성당제의 음악에 우선 주목한다. 금성당제가 해를 거듭하여 거행되는 동안에 서울굿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굿 음악이 가진 전형성, 다시 말해 정형화된 특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필 것이고, 이를 통해 구파발 금성당제의 전승 가치에 대해서도 가늠해 보는데 이 글의 목적을 둔다.¹⁰⁾

II. 금성당제의 의례 구조 및 거리별 음악 구성

1. 금성당제의 의례 구조

서울굿의 구조는 정형적인 틀 거리가 존재하여 그 정형성은 굿마다 그대로 잠재되어 있고, 이것이 발현되거

2, 민속기록학회, 2017, 6~7쪽.

6) 최진아, 「조선시대 성소(聖所)로서 금성당의 문화사적 위상」, 『비교민속학』 72, 비교민속학회, 2022, 104쪽.

7) 박흥주, 위의 책, 251~253쪽. 양종승, 『금성당 · 사신당 서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민속유적 학술조사 보고서』, 상명대학교 박물관, 2005.

8) 2016년은 금성당이 샤머니즘박물관으로 개관된 해이다.

9) 『2019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과 관련한 금성당제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강당, 2019년 11월 8일.

10) 필자도 발표자로 참여하여 “금성당제의 의례음악”을 통해 무가와 삼현육각을 분석한 바 있다. 이 글의 논의는 해당 발표문의 연구를 확장하여 전개하고 있음을 밝힌다.

나 구체적인 곳으로 변형될 때에도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¹¹⁾ 그래서 복원된 금성당제가 서울곳을 근간으로 하여 구조화되는지 살펴야 하고, 다음으로 금성당제만의 특화된 거리가 무엇인지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성당제가 처음 복원된 시기는 금성당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해인 2008년이다. 이때는 ‘금성당굿’이라 명명하여 거행되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다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금성당이 샤머니즘박물관으로 개관되면서 다시 ‘금성당제’로 명명하여 당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는 춘계와 추계로 일 년에 두 번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중단되었다가 2021년부터 연 1회씩 다시 시작되어 2023년 현재 총 11회째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금성당제의 의례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2008년과 2009년 금성당굿은 주무 최명희의 주재로 이루어졌고, 금성당이 아닌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총 14거리로 진행된 의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황토배설 - 주당물림 - 앉은부정청배 - 앉은가망청배 - 진적 - 천궁맞이 - 산거리 - 서낭모시기 -
금성님거리 - 대안주 - 대신말뎡 - 성주거리 - 창부거리 - 뒷전**

주당물림부터 뒷전에 이르는 거리 구성은 보편적인 서울곳의 구조를 띠고 있으나, 금성당에 모신 주신을 위한 ‘금성님거리’가 추가된 점이 절차상 특징으로 나타난다. 금성님 거리의 연행은 삼현육각 〈삼현도드리〉와 〈삼현타령〉이 연주되었고, 무가는 없이 공수만이 진행되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금성대군의 한풀이보다는 신앙의 힘을 발휘하는 신력을 강조하였다.¹²⁾

다시 시작된 2016년 금성당제는 10월 2일 ‘국태민안 금성대군 충의제’로 하여 구파발 소재의 금성당에서 거행하였다. 이때는 제관이 지내는 유교식 제례와 만신이 하는 당굿으로 구분하여 금성당제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굿에 앞서서 유교식 제례¹³⁾를 먼저 진행한 후에 황토물림부터 뒷전까지 최명희 만신이 주도하여 무속의례를 진행하였고, 금성당의 주신을 위해 금성왕국 거리로 연행하였다. 2016년 거행된 금성당제의 의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황토물림 - 주당물림 - 앉은부정청배 - 앉은가망청배 - 진적 - 천궁맞이 - 산맞이 - 서낭맞이 -
금성왕국 - 댜주굿 - 무감서기 - 동자선녀 - 대사 - 성주 - 창부 - 뒷전**

금성당은 2016년 5월 25일 샤머니즘박물관으로 개관되어 어떤 해보다도 대규모의 행사로 당제를 진행하였다. 길놀이와 풍물굿, 택견, 줄타기 같은 예능 종목과 국악관현악 공연, 그리고 금성당을 소개하는 강연도

11) 김현선, 「서울곳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8쪽.

12) 목진호, 「금성당굿의 연희적 구조와 기능, 그리고 전승가치」, 『국태민안 금성당·금성대군 충의제 학술대회』 발표집, 은평구, 2016, 21~23쪽.

13) 제관은 샤머니즘박물관 관장, 주민대표, 전주이씨금성대군파총회 대표 등 3인이 담당하였다.

별도로 진행하였고, 부적 찍기, 가훈 써주기, 전통탈 만들기, 연 만들기 같은 문화체험장도 함께 열었다. 마을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여 구파발지역의 문화축제로의 변신을 꾀하는 거대한 행사로 금성당제를 확장하였다.

이어진 **2017년 금성당제**는 만신 집단을 바꾸어 서울새남굿의 전승교육사인 이성재가 당제를 주도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유교식과 무교식으로 의례를 구분하였고, 금성당의 주신을 높이는 금성왕굿 거리를 구성하였으며, 이외에 ‘이말산흔맞이’와 ‘제당맞이’를 추가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아래는 2017년 거행된 금성당제의 절차구성이다.

**황토물림 - 주당물림 - 이말산흔맞이 - 제당맞이 - 앓은부정청배 - 앓은가망청배 - 진적 -
불사천궁맞이 - 산맞이 - 서낭맞이 - 금성왕굿 - 단주굿 - 무감서기 - 대신말명 - 군웅 - 성주 - 창부 -
이말산궁인 및 제당배웅 - 뒗전**

추가된 이말산흔맞이는 금성당 뒤편의 이말산 팔각정으로 가서 궁인들의 혼을 맞는 절차이고,¹⁴⁾ 제당맞이는 구파발·망원동·월계동 금성당, 선바위 국사당, 홍제동 할미당과 사신성황당, 박석고개 서낭당 등의 당신을 맞아들이는 절차이다.¹⁵⁾ 이는 ‘금성’이 신격 말고도 공간, 즉 장소의 의미도 아울러 가지기 때문에 신령과 공간을 각각의 몫으로 하여 거리를 구성한 것이다.¹⁶⁾ 제당맞이와 제당배웅을 통해 망원동과 월계동 금성당 및 할미당과 사신성황당 같은 일부의 당이 만신들에게는 성소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거리구성이다.

다음으로 **2018년의 금성당제**는 연 2회로 거행하게 되었는데, 봄에는 금성대왕의 탄신일에 맞추어 탄신맞이로 이성재가 주재하였고, 가을에는 금성대군의 충절을 기리는 충의제로 최명희가 주재하였다. 이 시기부터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유교식 제례와 무교식 제례를 분리하여 거행했던 것을 굿의 큰 틀 속에 통합하여 하나의 의례로 모은 점이다. 굿 안으로 들어가서 진행된 유교식 제례는 진관동 일대에서 모셔졌던 산신제의 전통을 이어서 재현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¹⁷⁾ 우선 2018년 봄에 거행된 의례 절차는 아래와 같다.

**황토물림 - 길놀이 - 금줄치기 - 주당물림 - 유교식 제례 -
금성대왕신맞이 - 이말산궁인흔맞이 - 제당맞이 - 앓은부정청배 - 앓은가망청배 - 진적 -
불사천궁맞이 - 산맞이 - 서낭맞이 - 금성왕굿 - 금성대군모시기 -
단주굿(큰거리) - 무감서기 - 대신말명 - 군웅 - 제석 - 성주 - 창부 - 제면 - 제당배웅 - 뒗전**

14) 이말산은 조선왕실에서 평생을 봉직했던 수많은 궁녀와 내시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옛 한양에 많은 굿당이 있었지만 꼭 금성당을 찾아 궁인들을 진혼했다고 하니, 금성당은 죽은 이의 명복을 빌던 궁인들의 원당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양종승, “금성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금성당 실재”, 『금성당제 복원을 위한 연구보고서』, 33쪽.

15) 만신의 진적굿에서도 삼산돌기를 하여 물고를 받아 오지 않았으면, 제당맞이를 굳이 하지 않지만, 금성당제에서 제당맞이를 하는 것은 금성당을 성소로서 예우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6) 목진호, “금성당제의 의례 구조와 의미”, 『금성당제 복원을 위한 연구보고서』, 67~73쪽.

17) 목진호, 110쪽. 이민주, “금성당제와 유교식 제례복식”, 226쪽.

춘제는 유교식 제례까지 포함하여 금성대왕신맞이, 금성왕굿, 금성대군모시기 등으로 거리가 나뉘어 여러 차례로 금성신앙을 다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금성당에 모신 ‘금성’이 금성대왕신과 금성대군으로 명백히 분리되고, 산신으로서의 금성도 새롭게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유교식 제례 다음에 금성대왕신, 이말산공인, 제당 등을 청하는 거리가 있음에도 금성왕굿에서는 금성대왕신, 산거리에서는 금성산신, 그리고 금성대군은 금성대군모시기를 통해 대접하고 놀렸다. 다음은 2018년 추계에 거행된 의례 절차이다.

길놀이 - 황토물림 - 주당물림 - 이말산공인맞이 - 금줄치기 - 유교식 제례 - 앓은부정청배 - 가망청배 - 금성대왕 · 제당 · 금성대군맞이 - 진적 - 불사천궁맞이 - 산맞이 - 서낭맞이 - 단जू곳(큰거리) - 대신말명 - 군웅 - 제석 - 성주 - 창부 - 계면 - 제당배웅 - 뒷전

춘제는 이말산공인을 제외한 금성대왕 · 제당 · 금성대군의 통합된 금성 신앙을 다시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초반의 일부 절차는 생략되지 않고 순서만 서로 달라졌는데, 길놀이가 황토물림 앞으로, 이말산공인맞이가 금줄치기 앞으로 구성되었다. 이때는 금성당제 복원에 처음부터 참여한 최명희가 다시 추계 금성당제를 맡아서 나타난 만신 집단 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서울굿을 근간으로 한 구성이나 추제가 춘제에 비해 절차를 간결하게 짠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2019년 춘계 금성당제는 다시 이성재가 집전하였는데, 금성 신앙과 관련한 별도의 거리를 구성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이는 금성대왕과 금성대군, 이말산공인을 유교식 제례에 포함하여 우선 대접하고 다시 무교식 큰거리에서 이중적으로 놀리면서 금성당의 주신을 대접하게 된 것인데, 이상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황토물림 - 앓은부정청배 - 주당물림 - 지신뱃기 - 이말산공인흔맞이 - 금줄치기 - 유교식 제례 - 앓은가망청배 - 제당맞이 - 진적 - 천궁맞이 - 산맞이 - 서낭맞이 - 큰거리 - 무감서기 - 대신말명 - 군웅 - 제석 - 무감서기 - 성주 - 창부 - 계면 - 제당배웅 - 뒷전

길놀이의 위치가 다시 바뀌는 구조로 짜였고, 금성 신앙을 유교식과 무교식으로 중첩하여 놀리면서 금성당제에서 가장 중요한 신격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비록 마을주민의 추렴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지만, 2번의 무감서기를 통해 인근 주민들이 함께 즐길 기회를 제공하며 금성당제가 구파발지역의 동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9년 추계 금성당제는 만신집단을 바꾸어 이영희 박수가 주재하였다. 유교식 제례의 위치를 제당맞이 앞에 연행하고 소지올리기를 하나의 거리로 구성을 하였으며, 성주굿에서 〈황제풀이〉를 추가한 점이 가장 주목되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의례 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당물림 - 터울림 - 황토물림 - 앓은부정청배 - 앓은가망청배 - 이말산공인맞이 - 금줄치기 - 유교식 제례 - 제당맞이 - 진적 - 천궁맞이 - 산맞이 - 서낭굿 - 큰거리 - 무감서기 - 대신말명굿 -

균웅굿-제석굿-성주굿(황제풀이)-창부굿-계면굿-제당배웅-소지올리기-뒗전

〈황제풀이〉는 집과 가족을 보살펴주는 가신인 성주신을 위한 성주맞이에서 부르는 무가이다. 이 무가는 예로부터 서울굿을 기반으로 하는 용문동부군당굿, 이태원부군당굿 같은 마을굿에서도 불렸던 전통이 있다. 특히 서울굿을 하는 만신들 사이에서는 〈바리공주〉와 〈황제풀이〉를 부를 줄 알아야 큰 무당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지만,¹⁸⁾ 실제 굿 연행의 현장에서 〈황제풀이〉는 듣기 어려운 무가에 속한다.¹⁹⁾ 혼자 장구를 치면서 1시간이 넘게 불러야 하는 〈황제풀이〉를 연행에 포함한다는 것은 금성당제가 외형적인 복원뿐 아니라 음악 내용적인 면에서도 완성도 있는 당제로 가려는 의지라 생각된다.

2021년 금성당제는 다시 만신집단을 바꾸어 강민정이 굿을 집전하였다. 무엇보다도 금성당제 삼일전에 당제 거행을 고하는 물고반기와 당제를 마친 후 이를 고하는 삼일정성을 정식 절차로 구성하여 사전 준비와 사후 과정을 포함하는 당제의 모습을 갖춘 점이 연행의 주된 특징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금성당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물고반기-황토배설-주당물림-얹은창배(부정창배 및 가망창배)-당돌기-이말산궁인맞이-
금줄치기-당기내림-유교식 제례-제당맞이-진적-천궁맞이-산맞이-서낭맞이-
금성대왕굿 및 금성대군굿-가망굿-무감서기-큰거리-균웅굿-제석굿-성주굿(황제풀이)-
창부굿-계면굿-뒗전-제당배웅-소지올리기-삼일정성**

당제 복원의 과정에서 금성당의 주신인 금성대왕 및 금성대군은 복원 처음부터 독자적인 거리로 배치하여 강조하였다. 하지만 2019년에는 제당맞이, 유교식 제례, 큰거리 등에 합하여 변화를 주었으나, 2021년부터는 유교식 제례 외에 금성대왕굿 및 금성대군굿 거리를 별도로 구성하여 다시 금성 신앙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또 성소로서의 중요성을 담은 당돌기가 추가되고, 제당배웅을 뒗전 뒤로 배치되어 당제의 마지막 절차로 구성하였다. 특히 〈황제풀이〉 무가의 음원도 제작한 바 있는 강민정이 성주굿에서 〈황제풀이〉를 직접 구송하여 음악적 완성도를 높인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2021년 구성된 금성당제의 의례 절차는 2023년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²⁰⁾

이상 총 11차에 걸친 금성당제의 복원 과정은 시기마다 의례 절차의 순서나 구성이 조금씩 추가되거나 바뀌는 형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칙적으로 금성당제는 서울지역의 천신굿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금성당의 주신인 ‘금성대왕굿 및 금성대군굿’을 하나의 거리로 연행하고, 이외에도 이말산에 묻힌 궁인을 위한 ‘이말산궁인 혼맞이’, 성소를 강조하는 ‘당돌기’와 ‘금줄치기’, ‘제당맞이’와 ‘제당배웅’ 같은 절차를 추가로 고착시켰다. 금성당제보존회 회장이며 당주인 양종승의 주도로 금성당제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으며 지역의 당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18) 염원희, 「〈황제풀이〉 무가 연구-타장르와의 교섭 양상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26, 국립민속박물관, 2010, 142쪽.

19) 당제에서 〈황제풀이〉를 구송하는 사례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남이장군사당제 정도이다.

20) 가망굿의 위치가 2023년에는 큰거리(댄주굿) 뒤에 연행된 차이가 있다.

2. 금성당제의 거리별 음악 구성

여기서는 2019년 춘계와 추계, 그리고 2022년과 2023년의 사례를 통해 금성당제의 거리별 음악 구성을 알아본다. 선별한 총 4회의 연행은 3명의 주무가 연행한 것이라, 연행집단별 음악적 특징을 살펴과 동시에 시기별 특징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2019년 춘계와 추계 금성당제의 거리별 음악 구성

서울굿에서 불리는 노래는 만신의 무가이고, 기악 연주는 악사의 삼현육각이다. 만신의 무가는 대표적으로 〈노랫가락〉, 〈타령〉, 〈청배〉, 〈만수반이〉, 〈휘모리청배〉가 있고, 악사의 삼현육각은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반염불〉이 보편적으로 연주되는 곡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선 2019년의 춘계와 추계 금성당제의 거리별 음악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9년 춘계와 추계 금성당제의 거리별 음악 구성

2019년 춘계			2019년 추계		
거리	무가	삼현육각	거리	무가	삼현육각
황토물림	-	-	주당물림	-	-
앞은부정청배	부정청배무가 부정물림휘모리무가	-	터울림 - 지신밟기	-	-
주당물림	-	-	황토물림	-	-
풍물패지신밟기	-	-	앞은부정청배	부정청배무가 부정물림휘모리무가	-
이말산궁인혼 맞이	-	굿거리 느린허튼타령 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당악	앞은가망청배	가망청배무가 가망노랫가락	-
금줄치기	-	당악 굿거리	이말산궁인맞이	-	길군악 반염불 굿거리 당악
유교식 제례	-	반염불 굿거리	금줄치기	-	-
앞은가망청배	가망청배무가 도당가망노랫가락	-	유교식 제례	-	자진한잎 굿거리 반염불 허튼타령
제당맞이	상산노랫가락 제당대감타령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제당맞이	제당가망노랫가락 제당대감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진적	상산노랫가락	반염불 굿거리	진적	상산노랫가락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2019년 춘계			2019년 추계		
거리	무가	삼현육각	거리	무가	삼현육각
천궁맞이	불사만수받이 중상타령 염불휘모리무가 산주기휘모리무가 불사노랫가락 호구만수받이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천궁맞이	불사만수받이 중상타령 천궁신장타령 천궁대감타령	굿거리 당악
산맞이	도당노랫가락 도당신장타령 도당대감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산맞이	제당가망노랫가락 도당신장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서낭맞이	-	굿거리 당악	서낭굿	-	굿거리 당악
큰거리	대신타령 상산노랫가락 신장타령 대감타령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당악	큰거리	상산노랫가락 신장타령 대감타령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무감서기	-	-	무감서기	-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대신타령	대신타령	굿거리 당악	대신타령굿	대신타령	굿거리 당악
군웅	군웅휘모리청배무가	굿거리 당악	군웅굿	군웅만수받이	굿거리 당악
제석	제석만수받이 중상타령	굿거리 당악	제석굿	제석만수받이 중상타령 염불휘모리무가 산주기휘모리무가 제석노랫가락 호구만수받이	굿거리 당악
무감서기	-	-	성주굿- 성주올리기	성주휘모리청배무가 성주노랫가락 황제풀이무가	굿거리 당악
성주	성주휘모리청배무가	굿거리 당악	창부굿	창부만수받이 창부타령(홍수맥이)	굿거리 당악
창부	창부타령	굿거리 당악	계면굿	계면만수받이 떡타령	굿거리 당악
계면	계면만수받이 계면타령	굿거리 당악	제당배웅	제당대감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제당배웅	-	굿거리	소지올리기	-	-
뒷전	-	-	뒷전	뒷전만수받이 결립대감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

금성당제에서는 연행 중간에 내외빈을 소개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초반부에 진행되는 주당물림, 황토배설, 앉은가망청배나 유교식 제례, 진적, 제당맞이 등의 절차가 현장 사정에 따라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 <표 3>에서는 거리별 음악 구성을 모두 기록하였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굿 초반에 전체 신을 청하는 무가의 구송에서 특수한 연행이 일어났다.

춘계 금성당제에서 진적 거리가 시작되어 <반염불>과 <굿거리>가 연주되면서 만신들은 굿상 앞으로 나와 절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다 마치기도 전에 내빈을 소개하게 되어 진적을 서둘러 마치게 되었는데, 서울굿 절차상으로는 천궁맞이가 다음 거리로 진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장구를 치던 만신은 미처 부르지 못한 <상산노랫가락>을 마저 부르고 진적의 연행을 완성하고 나서야 천궁맞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굿은 이렇듯 굿 안에서 나름의 기능을 갖고 불리는 무가를 생략하는 바 없이 불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이유로 굿 음악의 분석은 굿법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음악적으로 춘계와 추계 금성당제의 두드러진 차이라면, 추제에서 우선 무가 <황제풀이>가 성주굿에서 불린 것이고, 삼현육각에서 <길군악>과 <자진한잎> 연주가 포함된 점이다. 이렇게 음악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실상 만신과 악사의 음악적 역량이다. 금성당제는 천신굿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진오기굿에서 불리는 <바리공주> 무가나 <중디밧산무가>를 제외하고는 천신굿에서 불리는 무가는 사실상 금성당제에서 모두 구송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황제풀이> 구송이 가능한 만신을 통해 성주굿에서 <황제풀이>를 부르며 현재 전승의 위기에 있는 서울굿의 무가를 금성당제의 특징적인 무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삼현육각에 있어서도 서울굿 악사가 소화할 수 있는 경기 삼현육각은 어떠한 곡이든지 금성당제에서 연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제 이말산궁인맞이에서는 <길군악>이 연주되었고, 유교식 제례에서는 <자진한잎>이 연주되었다. 하지만 춘제에서는 다양한 악곡이 연주되지 않았다. <허튼타령>의 경우에만 속도의 변화를 주어서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이 연주되었을 뿐 <굿거리>와 <당악> 위주로 연주되었다. 과거 금성당제에서 삼현육각을 담당했던 악사는 궁정을 드나들던 전악이다. 진적에서 <자진한잎>의 연주와 이말산궁인맞이에서 <길군악>을 연주하는 것은 금성당제가 갖추어야 할 요소라 생각된다.

그런데 만신들은 기본적으로 <노랫가락>과 <타령>, <만수받이>를 부를 줄 알지만, <청배무가>나 <황제풀이> 무가는 일부 청배무당만이 선택적으로 배워서 부른다. 청배를 다니거나 큰 무당이 되고픈 경우이나 이 무가를 특별히 배울 뿐이다. 비슷한 예로 악사도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정도만 제대로 연주해도 굿판의 악사로 잘 불러 다니므로, 굳이 <취타>, <자진한잎>, <길군악>, <별곡타령>을 배워서 연주할 의지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악곡은 서울새남굿 악사인 경우에만 학습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첩이²¹⁾ 편성의 삼현육각이 갖추어졌다고 하여도 금성당제에서 다양한 악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성소에서 행하는 당제로서의 음악적 완성도가 높다고는 볼 수 없다.

21) 피리2, 대금1, 해금1로 구성되는 삼현육각을 가리키는 굿판의 용어이다.

2) 2022년과 2023년 금성당제의 거리별 음악 구성

다음은 코로나 이후 재개된 2022년과 2023년 금성당제는 만신집단은 같았으나,²²⁾ 악사집단은 교체되어 연행되었다. 각 연행의 거리별 음악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2022년과 2023년 금성당제의 거리별 음악 구성

2022년			2023년		
거리	무가	삼현육각	거리	무가	삼현육각
황토배설	-	-	황토배설	-	-
주당물림	-	-	주당물림	-	-
얹은청배	부정청배무가 부정물림휘모리무가가 망청배무가 가망노랫가락	-	얹은청배	부정청배무가 부정물림휘모리무가가 망청배무가 가망노랫가락	-
당돌기	-	길군악	당돌기	-	길군악
이말산공인 혼맞이	-	길군악 허튼타령	이말산공인 혼맞이	-	길군악
금줄치기	-	허튼타령	금줄치기	-	길군악
당기내림	-	허튼타령 당악 자진허튼타령	당기내림	-	취타 당악
유교식 제례	-	긴염불	유교식 제례	-	긴염불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제당맞이	제당가망노랫가락 제당대감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제당맞이	제당대감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제당노랫가락	굿거리 당악
진적	상산노랫가락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진적	상산노랫가락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천궁맞이	불사만수받이 중상타령 천궁호구만수받이 천궁신장타령 천궁대감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천궁맞이	불사만수받이 중상타령 불사노랫가락 산주기휘모리무가 천궁호구만수받이 천궁신장타령 천궁대감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산맞이	도당노랫가락 도당신장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산맞이	도당노랫가락 도당신장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22) 청배무당으로 2022년에는 박정순 만신이 왔고, 2023년에는 장주억 박수가 와서 군용거리에서 만수받이를 불렀다. 악사는 2022년 피리 우황보, 대금 김선호, 해금 최태영, 2023년 피리 최형근·김기준, 대금 양지식, 해금 서후석이 참여하였다.

2022년			2023년		
거리	무가	삼현육각	거리	무가	삼현육각
서낭맞이	-	능계 타령 당악	서낭맞이	-	당악 허튼타령
금성대왕굿 및 금성대군굿	-	긴염불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금성대왕굿 및 금성대군굿	-	긴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가망굿	대신타령	굿거리 당악	큰거리(덴주굿)	상산노랫가락 신장타령 대감만수받이 대감타령	긴염불 별곡타령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큰거리(덴주굿)	상산노랫가락 신장타령 대감타령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가망굿	대신타령	굿거리 당악 허튼타령
군웅굿		굿거리 당악	군웅굿	군웅만수받이	허튼타령 굿거리 당악
제석굿	제석만수받이 중상타령 염불조휘모리무가 제석노랫가락 산주기휘모리무가 호구만수받이	굿거리 당악	제석굿	안당말미 염불조휘모리무가 제석노랫가락 제석만수받이 중상타령 제석노랫가락	굿거리 당악
성주굿 (황제풀이)	성주휘모리창배무가 황제풀이무가 성주노랫가락	굿거리 당악	(황제풀이) 성주굿	황제풀이무가 성주휘모리창배무가 성주노랫가락	굿거리 당악
창부굿	창부만수받이 창부타령(홍수맥이)	굿거리 당악	창부굿	창부만수받이 창부타령(홍수맥이)	굿거리 당악
계면굿	떡타령	굿거리 당악	계면굿	떡타령	굿거리 당악
뒷전	걸립만수받이	-	뒷전	걸립만수받이 도개비대감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
제당배웅	제당노랫가락 제당대감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제당배웅	제당노랫가락 제당대감타령 수비치기휘모리무가	굿거리 당악
소지올리기		-	소지올리기		-

〈표 4〉를 보면, 무가는 다채롭게 활용되었으나 삼현육각의 악곡은 2019년 추제에 비해 오히려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나라굿을 하였던 위상이 있는 금성당제는 현재의 연행에서도 나라의 태평 성대와 국민민안을 기원하는 내용의 공수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악사의 삼현육각은 유교식 제례 내지는 진 적에서 〈자진한잎〉을 포함하는 거상악을 연주할 필요가 있다. 당기내림이나 서낭맞이와 같이 금성당 밖에서 연행하는 거리에서 호적을 연주하는 등의 음악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지만, 정작 금성당제의 위상에 따른 사잡이의 삼현육각은 어느 서울굿의 삼현육각과 차별된 연주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금성당제를 집전하는 만신집단은 강민정을 중심으로 고정되었지만, 악사집단은 아직 그렇지 못하여 삼현육각 연주는 시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악사집단도 만신집단과 같이 고정하여 안정적인 삼현육각 연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금성당제의 음악적 위상은 〈황제풀이〉나 〈안당말미〉²³⁾와 같은 서울지역의 특수한 무가와 〈자진한잎〉이나 〈길군악〉 같은 보통의 천신굿에서는 듣기 어려운 삼현육각을 연주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Ⅲ. 서울굿 음악의 전형성과 구파발 금성당제 음악

1. 연행구조로 본 서울굿 음악의 전형성²⁴⁾

서울굿에서 만신의 무가와 악사의 삼현육각은 무무, 무의식, 공수와 결합한 연행구조를 통해 청신과 오신, 송신과 같은 음악적 기능을 가진다. 우선 큰 단위 청신은 굿의 초반에 앉은 거리로 하는 부정거리-가망거리-진적의 연행을 말한다. 주무는 장구를 치면서 〈청배〉 무가를 부르고 이 무가를 마칠 때쯤 다른 한 명의 무당은 부정을 물리는 무의식을 연행한다. 그리고 앉은 거리의 청신에서 삼현육각은 〈반염불-굿거리-허튼타령-자진허튼타령(당악)〉을 연곡으로 연주한다.²⁵⁾ 앉은 거리의 청배는 부정거리의 〈부정청배무가-부정물림무가〉, 가망거리에서 〈가망청배무가-가망노랫가락〉 무가이고, 삼현육각은 가망거리의 〈가망노랫가락〉과 진적의 〈상산노랫가락〉을 반주하는 수성가락과 연곡의 삼현육각이다. 그리고 진적은 굿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대상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는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앉은 거리의 청신은 **무가(+무의식), 삼현육각(+무의식) → 무가의 구조**로 진행된다. 이상 앉은 거리로 하는 큰 단위 청신의 연행구조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앉은 거리 청신의 연행구조

무가/무의식/삼현육각	결합형태
무가(+무의식)	부정청배무가 → 부정물림무가(+물과 불로 부정물리기)
	가망청배무가(+상에 초 켜기) → 본향(가망)노랫가락
삼현육각(+무의식) → 무가	반염불 → 굿거리 → 허튼타령 → 당악(자진허튼타령)(+잔 올리고 절하기) → 상산노랫가락

23) 이 무가의 실재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24) 서울굿 음악의 전형성은 다음의 저술에서 분석된 내용 일부를 가져와서 기술함을 미리 밝힌다. 반혜성, 「서울굿 재수굿 연행과 음악의 기능」, 『한국음악연구』 55, 한국국악학회, 2014; 「서울안판굿음악의 구성과 기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서울굿 노랫가락의 전형」, 『한국음악연구』 58, 한국국악학회, 2015.

25) 〈허튼타령〉 뒤에는 당악장단이 2장단 이내로 짧게 연주될 때가 많은데, 이때는 미처 〈당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진허튼타령〉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얇은 거리로 연행한 큰 단위 청신이 끝나면 본격적인 선 거리의 연행이 시작된다. 서서 연행하는 개별 거리는 다시 작은 단위의 청신 과정으로 시작한다. 선 거리의 청신에서 부르는 무가는 〈만수받이〉, 〈휘모리청배〉,²⁶⁾ 〈노랫가락〉이 있다.²⁷⁾ 그리고 무가를 부르지 않고 삼현육각 〈굿거리〉가 연주되면서 사방 청배를 하거나 특별한 무의식이 없이 무무로만 선 거리의 청신을 연행하는 과정도 있다.²⁸⁾ 이때는 삼현육각 〈굿거리〉에 맞춰서 들이숙배나숙배춤을 추고 난 후 삼현육각 〈당악〉에 도무춤을 추는데, 이 연행구조는 선거리의 가장 보편적인 청신의 과정이다.

따라서 선 거리의 청신은 무가 → 삼현육각(+무무), 삼현육각(+무의식) → 삼현육각(+무무), 또는 삼현육각(+무무)로 시작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무가로 시작되더라도 이어서 굿거리(+들이숙배나숙배춤) → 당악(+도무춤)이 이어지기 때문에 선 거리의 청신에서는 삼현육각(+무무)이 기본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들이숙배나숙배춤은 신이 실릴 듯 말 듯한 현상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청신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무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여러 신격을 한 거리 안에서 놀릴 때 이루어지는 신격의 전환은 삼현육각(+무무)의 형태로 당악(+도무춤)이 일관되게 쓰이며 무가가 기본이 되는 얇은 거리의 청신과는 다르다. 이렇듯 선 거리의 청신은 삼현육각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무무나 무의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러 연행요소가 함께 결합 된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선 거리 청신의 연행구조

무가/무무/무의식/삼현육각	결합형태
무가 → 삼현육각(+무무)	만수받이 → 굿거리(+들이숙배나숙배춤) → 당악(+도무춤)
	휘모리청배 → 굿거리(+들이숙배나숙배춤) → 당악(+도무춤)
삼현육각(+무의식) → 삼현육각(+무무)	사방청배 → 굿거리(+들이숙배나숙배춤) → 당악(+도무춤)
삼현육각(+무무)	반염불(+거성춤) → 굿거리(+들이숙배나숙배춤)
	취타(+들이숙배나숙배춤) → 당악(+도무춤)
	굿거리(+들이숙배나숙배춤) → 당악(+도무춤)
	허튼타령(+들이숙배나숙배춤) → 당악(+도무춤)
	당악(+도무춤)

26) 〈만수받이〉 무가는 불사, 호구, 군웅, 창부, 제석, 말명, 계면, 결립 등 사실상 대부분 거리의 시작에서 불린다. 〈만수받이〉 무가는 “아 ~ 불사”, “아 ~ 창부”와 같이 신명을 호명하며 시작한다. 주무와 조무가 반복적으로 3~5자의 동일한 사설을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방식이어서 선을 진행이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다. 〈휘모리청배〉 무가로 청하는 신은 성주이다. 〈휘모리청배무가〉는 〈자진만수받이〉 무가라 부르기도 하는데, 휘모리장단에 맞춰서 불리는 청배의 기능이 있는 무가이다.

27) 〈노랫가락〉이 작은 단위의 청신에서 불릴 때 주무와 조무가 교대로 부르면서 마지막 절부터는 주무가 공수를 주는 가장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는 주로 진오기굿의 뜬대왕, 혹은 사재삼성거리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선 거리의 작은 단위의 청신에서 주무의 공수가 노랫가락이 끝나기 전부터 들어가는 것이 주목된다. 또 주무는 〈노랫가락〉을 부르면서 들이숙배나숙배춤을 추기도 해서 반주되는 음악보다는 이 춤 자체가 청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8) 만신에 따라서 〈굿거리〉의 삼현육각에 들이숙배나숙배춤을 추다가 사방청배를 하기도 하고, 사방청배를 하고서 들이숙배나숙배춤을 추기도 한다.

선 거리 전체의 과정은 사실상 신을 놀리는 큰 단위의 오신이다. 그래서 가무악희(歌舞樂戲)가 더 활발해지면서 신의 행세를 춤으로 표현하는 무무가 등장하고, 전물이나 무구를 사용하는 무의식, 그리고 공수를 주는 절차가 많아진다. 이 과정에서 신이 올랐음을 음악을 통해 더욱 신명나게 표현한다. 오신의 과정은 삼현육각〈굿거리〉나 〈허튼타령〉을 반주 음악으로 활용하고 신격에 따라 〈타령〉이나 〈노랫가락〉을 부른다.

〈타령〉 무가는 잘 대접 받았으니 이제 인간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신의 말 같은 노래이고, 〈노랫가락〉은 굿을 잘 받았다는 신의 뜻에 감사함을 전하는 찬신의 노래이다. 그래서 〈타령〉은 흥겨운 춤이 곁들여지면서 신장기 뽑기 같은 무의식도 곁들이고, 〈노랫가락〉은 사슬을 세우거나 산을 주는 등의 무의식을 수행하며 부른다. 그러므로 〈노랫가락〉은 청배이면서 찬신과 오신의 기능을 모두 있는 무가이고, 〈타령〉 무가는 전적으로 신을 즐겁게 놀리는 방식에 집중된 오신의 기능이 가장 강한 무가라고 할 수 있다.

신을 보내는 송신의 과정은 별도의 무가는 없고 삼현육각 〈당악〉에 무복을 벗거나,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일관된 연행을 구조화한다. 특히 송신은 무가가 불리지 않고 삼현육각만이 활용되고 있어서 청신과 오신에 비하면 음악적으로는 그 구조가 간결한 편이다.

이상과 같이 서울굿에서 무가, 무무, 무의식, 삼현육각 등의 연행 요소는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하며 정형화된 구조를 만들어 굿 안에서 기능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행의 구조를 통해 서울굿 음악의 전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금성당제 음악의 전형성

금성당제의 시작 부분에 하는 황토배설과 주당물림은 금성당을 정화하는 과정으로, 만신이 부르는 무가는 없다. 만신이 처음으로 부르는 무가는 부정거리의 〈청배〉부터이다. 그리고 삼현육각은 이말산궁인혼맞이를 위해 금성당 밖의 이말산자락으로 향해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²⁹⁾ 금성당제는 과거 유가돌기의 형태를 축약한 당돌기를 배치하여 〈길군악〉을 연주하며 유장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어지는 금줄치기와 당기내림, 그리고 유교식 제례까지는 무가 없이 〈길군악〉, 〈허튼타령〉, 〈당악〉 등이 연주된다.³⁰⁾

그리고 제당맞이는 진관동 금성당과 관련된 망원동 금성당 및 월계동 금성당을 비롯한 물 건너 화주당(하주당), 선바위 국사당, 홍제동 할미당, 무악재 사신성황당, 박석고개 서낭당 등의 여러 당신을 맞이하는 과정이다. 제당상 앞에서 들이숙배나숙배춤을 추고 한삼도령으로 도령돌기를 하는 것처럼 제당상을 놓고 돌면서 무무를 춘다. 이때 삼현육각은 〈굿거리〉이고, 무가로는 〈제당대감타령〉을 부르며 굿판의 흥을 돋운다.

무엇보다도 금성당의 주신은 앉은 거리로 불리는 〈청배〉에서 수차례 호명된 이후 이어지는 〈노랫가락〉에서 주신으로서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표현한다. 본래 〈가망노랫가락〉의 사설 중에 “본향 가망”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 “금성님” 또는 “금성대왕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벽사천리소 하오 금성대왕님 산에 올라

29) 앉은청배에서 부르는 〈가망노랫가락〉의 수성가락 반주는 삼현육각 악곡이 아니다.

30) 앉은 거리로 부르는 〈부정청배〉와 〈가망청배〉는 문서대로 부르면 너무 길어서 당제 전에 미리 전체 문서를 구송하고, 2023년 당제에서는 〈가망청배〉부터 불렀다.

~”하는 식으로 무가의 사설을 바꾸어 부른다. 이러한 양상은 진적의 〈상산노랫가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울굿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신격으로 본향신과 상산신을 꼽아서 무가 〈노랫가락〉으로 청배하거나 찬신을 한다. 그러므로 금성당의 주신을 〈노랫가락〉의 사설에 넣어 불렀다는 것은 음악적인 측면에서 그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성당의 주신을 놀리는 거리는 여러 해에 걸친 복원의 과정에서 선 거리로 하는 독자적인 연행으로 완성하였는데, 이 거리에서 금성대왕과 금성대군을 맞는 음악은 〈긴염불〉, 〈반염불〉과 같은 거상악을 활용한다. 보편적인 선 거리에서 활용하는 〈굿거리〉 대신 상산장단의 거상악을 사용하여 이 역시 주신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금성대왕굿 및 금성대군굿 거리에서는 무가 〈만수받이〉나 〈타령〉은 불리지 않는다.

금성당제에서 〈만수받이〉, 〈타령〉, 〈휘모리청배〉는 보편적인 서울굿의 음악 구성과 같게 적용된다. 선 거리의 시작에서 〈불사만수받이〉, 〈창부만수받이〉, 〈성주휘모리청배〉를 부르고, 오신 무가로 〈중상타령〉, 〈신장타령〉, 〈대신타령〉, 〈대감타령〉, 〈창부타령〉, 〈계면타령〉 등을 부르는 것이다. 이외에 성주굿에서 성주대 내리기와 〈황제풀이〉 무가를 연행하여 금성당제의 대표성을 띤 음악으로 정착시키고, 제석거리에 앞서서는 서울굿에서 단절된 무가로 알려진 〈안당말미〉의 구송을 시도한 점도 금성당제 음악의 특별함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을 보내는 과정에서 금성당제의 후반부에 있는 제당배웅은 초반부에 있는 제당맞이와 대구를 이루는 절차이다. 제당맞이를 통해 서울지역의 특수한 여러 당신을 맞이하고, 다시 제당배웅을 통해 보내는 것인데, 현재 금성당의 존립과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인 제차로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인 다음의 맨 마지막 절차로 하여 굿을 마치는데, 제당배웅은 제당맞이에서와 같이 삼현육각 〈굿거리〉와 〈당악〉에 맞춘 연행을 한다.

이렇듯 금성신앙은 〈노랫가락〉과 〈긴염불〉로 음악적 위상을 높였으나, 이외에도 보통의 천신굿에서는 연주되지 않는 무가와 삼현육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일테면 유교식 제례에서 축문을 읽고 잔을 올리는 과정에서 〈자진한잎〉을 연주하고, 진적에서는 〈긴염불〉 이하 거상악을 연이어 연주한다거나, 이말산궁인 혼맞이와 당돌기에서 〈길군악〉 이외에도 〈길타령〉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시도이다. 따라서 금성당제의 음악적 위상을 확립하는 과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 금성당제는 거리에 따라 굿 연행에 필수적인 가무악회의 모든 요소가 골고루 구성되었고, 이러한 연행은 금성당제가 서울굿 안에서 나름의 음악적 전형성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 판단된다. 앞서 서울굿의 무가, 무무, 무의식, 삼현육각 등의 연행 요소로 구조화된 전형성은 금성당제에서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어 구파발 소재의 당제로서 금성당제는 서울굿 음악의 전형성 안에서 활용된다고 하겠다.

3. 금성당제의 〈안당말미〉가 주는 의미와 가치

여기서는 2023년 금성당제에서 구송된 〈안당말미〉에 주목해 본다. 〈안당말미〉는 서울지역에서 전승이

단절된 무가로 알려져 있고, 이 무가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만신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³¹⁾ 금성당제에서 불린 〈안당말미〉는 제석굿을 시작하기 전에 강민정이 불렀는데, 강민정은 이 무가의 문서를 받기 전까지는 〈안당말미〉에 관한 사전 정보가 없었다고 한다.³²⁾ 그렇다면 금성당제에서 불린 〈안당말미〉는 서울굿에서 단절되었다고 하는 무가를 철저히 복원의 차원에서 재연하였다는 것이다. 이 무가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민정이 구송한 〈안당말미〉는 삼각산도당굿의 당주로 활동하는 박명옥(1940~)의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박명옥은 삼각산도당굿에서 대감거리 다음에 하는 제석거리의 시작에서 직접 장구를 치면서 앉은 거리로 〈제석청배〉를 부른다.³³⁾ 보편적인 서울굿에서 제석거리의 시작은 〈제석만수받이〉를 부르는데, 박명옥은 별도로 〈제석청배〉를 부르고 나서 제석거리를 시작한다. 여느 개인굿이나 마을굿에서는 없는 연행이라, 삼각산도당굿의 〈제석청배〉의 배치와 구송은 매우 독보적이다. 그렇다면 〈제석청배〉가 곧 〈안당말미〉인가?

삼각산도당굿의 연행은 광복 이전부터 2004년까지 김명석(1925~?)이 당주무당으로 참여하여 오롯이 이끌었고, 김명석이 연로하여 2004년 하직굿을 하여 물러난 후로 당주의 역할은 박명옥에게로 이어졌다. 김명석과 함께 삼각산도당굿에 참여하였던 박명옥은 김명석의 연행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삼각산도당굿에서 불리고 있는 〈제석청배〉는 사실상 김명석으로부터 이어진 무가이다.³⁴⁾

김명석은 수유동에 살아서 무네미꽃방집이란 별호를 사용하였다. 9세에 입무 하였고 상궁 시녀였던 고모가 신이 내려 나라굿을 하였다고 하니 신 내력이 있는 집안 출신이다. 김명석의 신어머니인 꽃방집도 말을 타고 다니며 나랏굿을 한 인물이라 김명석이 전하는 무가는 한양굿의 정통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명석은 〈안당말미(또는 제석말미)〉 무가를 연구자들에게 구연하여 전한 바 있기도 하다.³⁵⁾ 아래에 김명석이 제공한 〈안당말미〉와 금성당제의 〈안당말미〉 사설을 비교해 본다.

〈표 5〉 김명석과 금성당제의 〈안당말미〉

김명석 안당말미	금성당제 안당말미
대함제석님마누라 켜제석님마누라 제불제천은 천지건곤 향사제불은 불사제석 도당제석은 살류제석 부군제석님 산신토신 부군제석님마누라 제석님의 본을 풀면 게 어딘가 본이신고 세화색 고깔을 숙여쓸 때 자 세치로는 고깔제석 석자 세 치는 후대제석 일곱 자 일곱 치는 긴대제석	대함제석 마누라 켜 제석님 마누라 제불제천 천지건곤 일월용왕 심신제석 제석님 본을 풀면 어딘가 본이신가 자세치는 고깔제석 석자 세치는 후대제석 일곱자 일곱 치는 긴대제석 기단가사로 위를 메고

31) 필자는 유일하게 성동구 얘기씨당의 당주 김옥렴으로부터 안당말미의 구연과 제보를 받은 바 있다(2014년 3월 8일 얘기씨당).

32) 금성당제의 당주인 양종승관장이 제공하였다.

33) 『우이동 삼각산도당제』, 삼각산도당제전승보존회, 2006, 297쪽. 필자도 두 차례 직접 참관하여 연행을 조사한 바 있다.

34) 필자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제석청배〉가 확인되는 유일한 곳이 삼각산도당굿이다. 삼각산도당굿에 일반적인 서울의 마을굿에서는 볼 수 없는 작두거리가 들어간 것은 현재 당주로 활동하는 박명옥의 영향이다. 당주는 굿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책, 17~21쪽.

35) 김현선, 『『안당말미』의 존재 의의와 역사적 변천』, 『비교민속학』 55, 비교민속학회, 2014, 384~388쪽.

김명석 안당말미	금성당제 안당말미
백팔넛주를 목에 걸고 신의 댕주를 손 우에 걸고 팔대장삼을 입은 후에 빨간 가사를 위로 미고 침지 침지를 받을 적에 염불동참을 받으실 제 대양푼에는 받으시니 서 말 서 되는 대고양요 말 서 되로는 소고양에 자단향이면 만수향이요 우아리 삼주채를 받으시고 미나리로는 긴 강화요 남개 돌아서는 버섯차부 돌에 돌아서는 석이차야 약령 계수를 받은 후에 산에 올라서 십년 공부 들로 나리의 십년 공부 중간 담천에 오른 후에 높은데다강 법당 짓구 얇은 데다강 초막 지어 염불동참을 받으실제 아침 자미를 돌아다가 저녁 예불 공덕 잡수시고 저녁 불공을 받아다가 아침 불공을 잡수 후에 제 밧에 고깔을 숙여 쓰고 팔대장삼을 떨쳐 입고 비단가사를 위루 미구 폐주부 함쌍을 받은 후에 서 말 서 되는 대고양요 말 서되루는 소고양에 자단향이면 만수향이요 또아리 삼주채를 받으시구 미나리로는 김광화요 당개 돌아서는 버섯차구 돌에 돌아서는 석이차야 약령 계수를 갖추어 받은 후에 낮이나 되면은 만국을 마련 밤이나 되면은 인간 점지 못다 허시든 말씀을랑 염불의 동참을 내리소사	데주박 한 쌍을 받은 후에 백팔넛주 목에 걸고 신의단주 손목에 차고 산에 올라 십년 공부 들오 내려 십년공부 이십년 공부를 마친 후에 이리 열 칸 저리 열 칸 삼십사 칸 법당을 짓고 얇은 데는 초막을 짓고 아침제미 돌아다가 저녁불공 잡수시고 저녁제미 돌아다가 아침불공 잡수시고 밤이 되면 인간 점지를 하고 낮이 되면 만물 점지를 하고 서 말 서되는 대공양 말 서되는 소공양 자다향은 만수향 의아리 삼주채 받으시고 미나리는 긴강아 받으시고 나무에 사는 버섯채 돌아 돌아서는 쇠기채 가중에 자손발원을 하실 때 아들 침지 하실 때 백항아리 용왕제석 따님애기 기르려고 바가지는 넝쿨제석 못다한 말씀일랑 염불동참하소서

김명석은 〈안당말미〉를 ‘제석본’이라 하여 굿거리장단에 노래하였다. 삼각산도당곡의 박명옥이 부르는 〈제석청배〉 역시 굿거리장단에 맞춰 부른다. 큰 틀에서 볼 때 김명석이 〈안당말미〉를 가창하는 방식과 박명옥이 부르는 〈제석청배〉의 가창 방식이 같고, 굿거리장단의 음악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렇다면 〈안당말미〉는 결국 〈제석청배〉라고도 부를 수 있고, 만신이 직접 장구를 치면서 부른다는 점에서는 〈황제풀이〉 무가의 가창 방식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강민정은 〈안당말미〉를 부를 때 오른손으로 장구의 궁편을 치고 왼손에는 방울을 들고 흔들면서 노래하였다. 그리고 음악적 구조는 진오기굿의 〈바리공주〉 말미와 같이 일정한 장단이 없이 궁편과 방울 소리로 단락을 지으며 불렀다. 또 강민정은 〈표 5〉의 문서를 노래하기 전에 진오기굿 〈말미〉의 시작과 같이 “나라로 나라로 공심은 절이웁고 절이는 남서가 본으로 승언이다 ~”를 독자적으로 붙여서 불렀다. 그동안 김명석에 의해 알려진 〈안당말미〉의 연행과는 음악적으로 다르게 구송하였다.

강민정이 독자적으로 붙인 부분은 일제강점기의 무가로 경성의 무녀 공성녀가 전한 〈안당말미〉의 시작 부분과 유사하여³⁶⁾ 아래 〈표 6〉에 이 둘을 비교해 본다.

그런데 강민정은 〈안당말미〉를 부르기 전에 〈표 6〉의 전체 사설을 붙인 이유에 대해 “예로부터 축원할 때는 누가 왜 이런 축원을 하는지를 먼저 고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으니 문서의 머리가 없는 격이라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였다.³⁷⁾ 그러니까 이 무가가 축원의 무가라는 점과 말미라는 근거에 따라 구송

36) 沈雨晟 譯, 秋葉隆・赤松智城 共著, 『朝鮮巫俗の研究 上』, 서울: 東文選, 1991, 339~344쪽.

〈표 6〉 〈안당말미〉의 시작 부분

경성무녀 공성녀 구전 앞부분	강민정 구송 앞부분
나라로 나라로 공심은 절이요 절이 남소가 본이로성이다 텨님이알으소사 침써집소와 삼십삼턴 나리집소와 이십팔수 팔대장군나옹무웅이 진이성이다 국으로 진이여서도 강남은 대한국 해동은 조선국 리씨주상 금마마님본으로는 함경도영흥단천이 본이로성이다 치여다 백재일 산이 천도하고 날여다 유재일은 죽은이 천도하고 흥모란 흥산주요 백모란 백산주요 잠잠현 초스불 향내 일배주 곡성으로 희망하시느 날이로성이다 경기는 삼십칠관이요 양주는 대모관이요 창덕궁 창해궁 경복궁 경덕궁 아랫대궐 옷대궐 종모사직위패를 바더 진이위성이다 데석님놀으소사 대암데석소암데석 제불제련황사데불 불사데석마누라아모양위의 (이하 생략)	나라로 나라로 공심은 절이웁고 절이는 남서가 본으로 승언이다 국으로는 강남은 대한 국이웁고 해동은 조선국이온데 천님이 이루소사 치어달아 삼십삼턴 내리 깊 소아 이십팔수 스물여덟 땅 서랍배판을 하소이다 해튼세계 달 뜬 세계 사해로 인물세계신데 햇쌍년으로는 계묘년 달로지공수는 스무 나흔 날 올습니다 살어가는 거주지점 은평구 대동일동 금성당 지점이 올습니다 대한민국 만백성들 올습니다 제석님 놀어소사 대함제석 마누라 켜제석마누라 석가여래 삼재석마누라

되었다는 것이다. 강민정은 금성당제에서 부를 〈안당말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문서로 받은 마달일지라도 실제 굿에서 구송할 때는 그 무가의 쓰임에 따라 일정한 정형성을 갖추려고 하였다.³⁸⁾ 그러므로 금성당제의 〈안당말미〉는 만신의 음악적 역량과 굿에 대한 법식이 반영된 독자적인 연행이라 하겠다.

삼각산도당굿에서 불린 문서는 ‘제석청배’라고 하였기 때문에 “대함제석마누라 켜제석님 마누라~”로 시작하며 굿거리장단으로 불릴 수 있다. 사경제에서 불렸던 〈안당말미〉, 또는 〈제석말미〉, 〈제석청배〉, 〈제석본풀이〉 등으로 불린 무가의 존재 양상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복원된 적이 없어서 이에 대한 음악적인 준거 확보와 고증의 과정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렇듯 강민정이 재현한 〈안당말미〉는 불완전하다. 따라서 구대인의 이야기와 문서로만 전해진 무가 〈안당말미〉가 금성당제에서 구송되어 그 음악의 실체를 재현하고자 했다는 점에 우선적인 의미를 두겠다.³⁹⁾ 금성당제 역시 훼손되어 사라지고 있는 서울지역의 당에서 하는 당제의 재현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라 이 곳에서 서울지역의 단절된 무가가 삽입되어 불린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37) 2023년 6월 28일, 29일 전화로 강민정 제보

38) 강민정은 현재 서울새남굿 보유자인 이상순 만신에게 30년 이상 무당학습을 착실하게 하였고, 탄탄하고 정통성 있는 서울굿을 연행하는 만신으로 이름이 나 있다.

39) 〈안당말미〉의 음악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IV. 맺음말

구파발 소재의 금성당은 2008년 국가민속문화재 제258호로 지정되는 한편, 2016년에는 샤머니즘박물관으로 개관되어 현재에 이르며 해마다 금성당제를 복원하여 거행하고 있다. 이 글은 총 11차가 거행된 금성당제의 의례 구조를 우선 살펴보고, 다음으로 2019년 춘제와 추제, 그리고 2022년과 2023년 금성당제의 거리별 음악 구성을 분석하여 서울굿 음악의 전형성이 금성당제 안에서 연행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성당제에서 금성대왕굿과 금성대군굿, 이말산궁인 혼맞이, 당돌기, 제당맞이, 제당배웅과 같은 절차는 금성당제에서 특화된 거리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거리를 포함한 금성당제의 연행은 무가, 무무, 무의식, 삼현육각 등의 연행 요소로 짜이는 정형화된 구조에서 서울굿 음악의 전형성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금성당제는 지역의 행사로 정해진 시간 안에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본 굿을 하기 전에 이말산궁인혼도 미리 맞아서 당에 모셔놓고, 각각 1시간이 넘는 〈부정청배〉와 〈황제풀이〉 전체를 미리 연행한다. 굿 연행을 위한 얇은 거리의 청신에서 〈부정청배〉는 가장 중요한 무가이고, 성소로서의 금성당을 위한 〈황제풀이〉 역시 중요한 무가이므로 생략하는 바 없이 연행을 완성하고 있다.

둘째, 금성당의 주신은 얇은 거리에서 불리는 두 차례의 〈노랫가락〉에서 불리며 음악적인 측면에서 그 위상을 높게 두고 있었다. 또 선 거리로 연행될 때는 금성대왕과 금성대군을 맞는 음악으로 〈긴염불〉, 〈반염불〉과 같은 상산장단의 거상악을 활용하여 보편적인 선 거리에서 활용하는 〈굿거리〉보다 역시 음악적인 위상을 높였다. 이에 따라 금성대왕굿 및 금성대군굿 거리에서는 무가 〈만수받이〉나 〈타령〉은 불리지 않았다.

셋째, 서울지역에서 전승의 위기에 있는 〈황제풀이〉와 단절되었다고 보는 〈안당말미〉가 연행되었다는 사실은 금성당제가 단순한 당제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독보적인 위상을 점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특히 서울굿 무가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황제풀이〉의 음원을 낸 바 있는 강민정에 의해 〈황제풀이〉와 〈안당말미〉가 구송된 사실로 인해 독보적인 무가 구송의 확보는 연행자의 몫임을 생각하게 하였다. 하지만 〈황제풀이〉 무가를 포함한 성주굿의 연행은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나, 〈안당말미〉의 구송은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안당말미〉의 존재를 드러내어 실재 자체를 고민하게 한 의도에 나름의 의미를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나라굿의 전통이 있는 금성당제에서의 삼현육각은 궁중악사로도 활동하였던 전악의 음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궐이의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경기에서 전해지는 여러 삼현육각이 금성당제에서 두루 활용될 필요가 있다. 금성당제를 집전하는 만신집단은 2021년 이후로 거의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악사집단은 아직 그렇지 못하여 금성당제 삼현육각은 시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무당집단과 같이 악사집단도 개선하여 고정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거행된 구파발 금성당제는 서울의 도시화로 수많은 당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당제도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서도 소생한 현재진행형의 당굿이라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 보였다. 가까운 시일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금성당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소생하는 당굿의 대안이기를 바래어 본다.

〈참고문헌〉

- 김현선,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 김현선, 「『안당말미』의 존재 의의와 역사적 변천」, 『비교민속학』 55, 비교민속학회, 2014.
- 『금성당·사신당 서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민속유적 학술조사 보고서』, 상명대학교 박물관, 2005.
- 목진호, 「금성당굿의 연희적 구조와 기능, 그리고 전승가치」, 『국태민안 금성당·금성대군 충의제 학술대회』 발표집, 은평구, 2016.
- 목진호, “금성당제의 의례 구조와 의미”, 『금성당제 복원을 위한 연구보고서』.
- 박홍주, 『서울의 마을굿』, 서문당, 2001.
- 반혜성, 「서울굿 재수굿 연행과 음악의 기능」, 『한국음악연구』 55, 한국국악학회, 2014.
- 반혜성, 「서울안안판굿음악의 구성과 기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반혜성, 「서울굿 노랫가락의 전형」, 『한국음악연구』 58, 한국국악학회, 2015.
- 沈雨晟(譯), 秋葉隆・赤松智城(共著), 『朝鮮巫俗の研究 上』, 서울: 東文選, 1991.
- 沈雨晟(譯), 秋葉隆・赤松智城(共著), 『朝鮮巫俗の研究 下』, 서울: 東文選, 1991.
- 양종승, 「샤머니즘박물관 설립 취지 및 소장 유물」, 『민속기록학회』 2, 민속기록학회, 2017.
- 양종승, 「금성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금성당 실재」, 『금성당제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2019.
- 양종승, 『2019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과 관련한 금성당제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은평역사한옥 박물관 강당, 2019년 11월 8일.
- 양종승, 『금성당제』, 글자와 기록 사이, 2021.
- 염원희, 「〈황제풀이〉 무가 연구-타장르와의 교섭 양상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26, 국립민속박물관, 2010.
- 『우이동 삼각산도당제』, 삼각산도당제전승보존회, 2006.
- 최진아, 「조선시대 성소(聖所)로서 금성당의 문화사적 위상」, 『비교민속학』 72, 비교민속학회, 2022.
- 홍태한, 「서울 신령 ‘금성’의 정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 31, 실천민속학회, 2018.

* 이 논문은 2023년 8월 31일에 투고되어,
2023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10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Music of the Geumseongdangjea through the typicality of Seoulgut Music

Ban, Hyesung*

The Geumseongdang in Gupabal was opened as a shamanism museum in 2016 and Geumseongdangjea has been restored and held every year. This article examined the typicality of Seoulgut music by examining the performance structure of Geumseongdangjea, which was performed 11 times. Afterwards, the musical composition was examined for the Spring Geumseongdangjea and Fall Geumseongdangjea in 2019, and 2022 and 2023. The abov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eumseongdangjea is made of characterizing procedures such as Geumseongdaewanggut and Geumseongdaegungut, Honmaji, Dangdol, Jedangmaji, and Jedang Baewoong. Geumseongdangjea which include the procedures above include the typicality of Seoulgut music through shamanic songs, music, ceremony and Samhyeonyukgak. The musical characteristics are highly considered especially because the main spirit for Geumseongdangjea asks for “Noraetgarak” in seated performance and Sansanjangdan’s “Kinyeombul” for standing performance.

“Andangmalmi” is believed to have been cut off from “Hwongjeapuri”, which is on the verge of extinction in Seoulgut. The fact that these are performed indicates that Geumseongdangjea intended to gain an unrivaled status, rather than simply reviving. The intention of provoking thoughts behind the existence of “Andangmalmi” itself is meaningful, because the singing of “Andangmalmi” has not been completed despite the fact that the performance of Seongjugut (including “Hwongjeapuri”) has been done well.

Because Geumseongdangjea has held the position of doing gut for the country in the past, in its current performance, it still includes wishes and messages of peace for the nation and the citizens. In order to solidify the value and the musical reputation of Geumseongdangjea, improving the musical completion through the following is needed: rare shamanic dances in Seoulgut such as “Hwongjeapuri” and “Andangmalmi” and / or Samhyeonyukgak which is rare in typical Chonsingut such as “Jajinhanip” or “Gilgunak”

[Keywords] Seoulgut, Geumseongdang, Geumseongdangjea, Geumseongwangshin, Geumseongdaegun, Hwongjeapuri, Andangmalmi

* Research Professor,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